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2018.07 / NO.16

서울독립영화제

우리들은 스무살

독립영화 20주년 스페셜

Independent film 20th Anniversary Special

EDITORIAL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이 쓴 시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 공기 마시는 것 공짜 / 말하는 것 공짜 / … 꿈도 공짜 / 개미 보는 것 공짜' 이 공짜 행렬 중에 아니 이런 공짜가? 싶은 공짜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 드는 것 공짜' 였습니다. 그러게, 나이 드는 것은 돈도 안 내고 시간만 흘려 보내면 되는 것이구나 하다가, 정말로? 나이 드는 것이 정말 공짜일까? 생각했습니다.

공짜로 차곡차곡 먹는 것 같지만서도, 실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들지 않는 일도 아닌 게 나이 먹기 같습니다. 그래서 백일에 수수팥떡을 먹고 첫돌에 잔치를 하고 성인의 날을 기념하고 매년 생일에 미역국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 먹는 일은 참, 누가 돈 내라고 하는 건 아닐지라도 조금쯤 눈물겹기도 하고 값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먹는 일이 집단의 일이 되면 또 남다른 느낌을 줍니다. 같은 스무 살이어도 영화제의, 단체의, 한 회사의 스무 살은 더 무겁고 오래된 시간을 말하는 것 같지요. 게다가 이거야말로 정말, 그 어떤 의미에서든 '공짜'도 아닐 것입니다. 비단 돈 문제가 아니어도, 이십 년을 이어가기까지 들었을 수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인디스토리, 정동진독립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가 20주년이 됐습니다. 20년이 흘렀다고 해서 눈 감고도 뚝딱,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해결되는 일은 여전히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힘이 되는 건 그간 쌓아온 기억, 동료들, 관객의 지지, 영화 속에 살아있는 꿈 같은 것들이 곁에 있어서겠지요. 그렇기에,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세상 모든 이야기라는 한국독립영화협회, 현실적 무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전히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는 일에 두근거리는 인디스토리 사람들, 올해도 변함없이 정동초등학교에서 3일간 관객을 맞이하는 '그대로의 소박함'을 꿈꾸는 정동진독립영화제의 이야기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도 든든하고 벅차게 들립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에도 영화제 탐방기를 실었습니다. 티벳고원 근처 시닝에서 벌어지는 퍼스트국제청년영화제입니다. 이 계절에 다시 헤아리게 되는 <한여름의 판타지아>도 '다른 영화 말고 너'를 통해 독자와 만납니다. 과거를 응시하는 시선을 현재의 설레는 산책으로 바꾸어놓는 이 영화의 마법이 그리워지던 참입니다. 일시정지시네마 유재균 대표의 '독립영화관'도 들어 봅니다. 춘천의 독립 친구들과 손잡고, 관객과 신나는 독립영화 나들이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NOW 16호는 뜨거운 여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름은 애니메이션에서나 보기 좋은 계절이라는데, 이렇게 보니 여름 내 뛰어온 이들의 목소리를 글로 읽는 것도 제법 근사한 일 같습니다. 여름에 극장으로 피서를 오시면, NOW와도 한 번 인사해 주세요.

글 / 김송요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편집위원)

CONTENTS

2

03
SPECIAL
04
인디스토리
곽용수 대표, 김화범 이사, 김소나 차장
08
정동진독립영화제
박광수 집행위원장, 송은지 사무국장
12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 이지연 사무국장

16 다른 영화말고 너
<한여름의 판타지아> (장건재)
17 RELAY TALK
일시정지시네마 유재균 대표
18 FEATURE
퍼스트국제청년영화제 방문기
20 TOON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INDEPENDENT FILM
20th Anniversary Special

스무 살

스물이라는 숫자, 눈 깜짝할 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열 손가락을 모두 접었다 펴야만 꼬박 셀 수 있을 만큼 커다랗습니다. 특히 그것이 나이라면은, 아직 어린 것 같다가도 스스로를 여물게 할 만큼은 성숙한 크기일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 쌓은 웃음과 땀과 연대와 투쟁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NOW 16호는 스무 번의 계절을 돌아 여전히 곁에 서 있는 친구들, 여전히 젊지만 그만큼 성숙해진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인디스토리, 정동진독립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올해 세 곳은 의미 있는 생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슬픔이나 피로, 분노를 이길 기운을 주었던 영화, 동료, 관객과 다시 힘차게 악수할 계획입니다. 스무 살이 되면 생기는 책임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스무 살이 되면 생기는 즐거움도 있는 법이겠지요. 그 모든 것이 스물이라는 숫자의 무게이자 활력일 것입니다. NOW에서 세 친구들의 스물 이야기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인디스토리

결국 모든 것은 꾸준함에서 비롯된다. 척박한 이곳에서 20년을 버텨 살아남은, 독립영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 싶었다. 구식이라고 칭하기엔 이제 “갓 스물!”인 ‘인디스토리’. 독립영화 제작배급사 인디스토리의 곽용수 대표, 김화범 이사, 김소나 차장을 만나 또 다른 10년, 20년을 그려보았다. (사진=왼쪽부터 곽용수 대표, 김소나 차장, 김화범 이사)

인디스토리는 1998년 11월 11일, 무려 20세기에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영화배급사다. 먼저 인디스토리의 시작에 대해 듣고 싶다. 회사명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궁금하다.

곽용수: 처음엔 문화학교 서울에서 영화 상영, 강의 등을 했다. 그러다 인디포럼 첫 해를 준비하면서 한국영화를 위해서는 독립영화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감독들에게 배급사의 존재가 절실해서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독립영화 배급사를 만들어볼까 하게 됐다. 마침 1998년에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도 생겼고. 당시 활동하던 감독 및 기획자들이 독립영화 배급사가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자며 한데 모였다. 나름의 시장조사, 상황파악을 한 거다. 한 달 동안의 조사 끝 내린 결론은 '어렵겠다'였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결국 시작하게 됐지만. 책임감 반, 재미 반이었던 것 같다. 처음엔 문화학교 서울 안에 인디스토리라는 단체를 꾸렸다. 그러다 배급사는 단체가 아닌 회사 성격인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2000년에 정식으로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했다. 그 때 미로비전이 단편영화를 세일즈하고 있었고, 독립장편은 많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아니었다. 장편 배급사로 출발한 건 이후 지향점을 담은 거다. '인디스토리'라는 이름은 술자리에서 나왔다. 뭐가 좋을까 고민하던 와중 김영덕 프로그래머(현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인디스토리'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인디 히스토리'의 줄임말처럼 중의적으로 읽힐 수도 있고.

처음 꾸릴 때는 팀과 인원 구성이 어땠나?

곽용수: 문화학교 서울 멤버들로, 국내배급 한 명 해외배급 한 명 정도 있었다. 그땐 배급이라고 해야 해외는 영화제 출품, 국내는 지역 방송 정도였다. 지금은 나를 제외하고 6명이 근무한다.

각자 맡은 업무와 어떻게 인디스토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김화범: 한독협 소속으로 인디스페이스 개관을 준비해 갓 막을 올렸을 때다. 새로운 곳에 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여기서 무슨 일을 할지 큰 생각이 없었다. 기존 근무자들과 겹치지 않는 일을 하려면 제작 쪽 일을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좋은 배급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고. 마침 인디스토리가 안슬기 감독의 <지구에서 사는 법>(2009) 제작을 준비중이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액 지원을 받은 첫 케이스였던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제작부 일을 시작해 제작 관리를 맡게 되며 제작 담당이 됐다.

김소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영화를 하려고 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현장에 나갔다. 전공은 철학인데, 영화를 하고 싶어서 간 거다. 그때 그게 좀 유행이었다.(웃음) 현장에서 하는 일로는 돈을 벌기 어려웠고 떼이는 경우도 있어서 지치는 마음에 졸업 후엔 일반 회사 마케팅팀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역시 영화가 제일 재미있어서 다시 여기로 오게 됐다. 처음엔 수입사에 있었고 인디스토리로 온 지는 3년차다. 세 명으로 꾸려진 국내배급팀에 있다. 두 사람은 국내 영화제 출품, 공동체 상영, 극장 개봉을 준비하고 나는 마케팅을 담당한다.

3년 전 NOW 독립영화 배급사 특집에 인디스토리가 실렸다. 당시 인터뷰 제목이 '잘 생겼다, 잘 컸다, 예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다오!'였다. 예쁘고 건강하게 나이 먹고 있는지.

곽용수: 늙어가고 있다.(웃음)

20년을 버텨서 살아남았다. 감회가 어떠한가. 남은 2018년동안 자주 받게 될 핵심 질문이 아닐지!

곽용수: 스무 살이 됐다. 책임감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년을 버텼으니 앞으로 5년, 또 그 5년은 어떻게 그려야 하나 자연스럽게 고민이 따라온다. 아무래도 회사가 어려우니까 마냥 즐겁지는 않다. 복합적이다.

곽용수 대표를 제외한 두 사람 역시 꽤 오랜 시간 인디스토리와 함께했다. 개인적 소회가 있을 것 같다.

김소나: 20년이나 된 영화사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여러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이다. 우리 마음대로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다. 재정상 모든 것들이 한정적이라 생기는 어려움이다. 그래도 뮤직뱅크도 20년이고 신화도 20년이 됐다니까 그들과 동질감도 느낄 수 있고.(웃음)

김화범: 비슷하다. 20년을 버텨온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내가 거기 일원으로 있다는 게 행복하다.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려 한다.

2008년에 맞은 10주년은 '오!인디플영화제', 2013년 '15주년은 인디GO영화제'와 기념 영상으로 축하했다. 이번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계획도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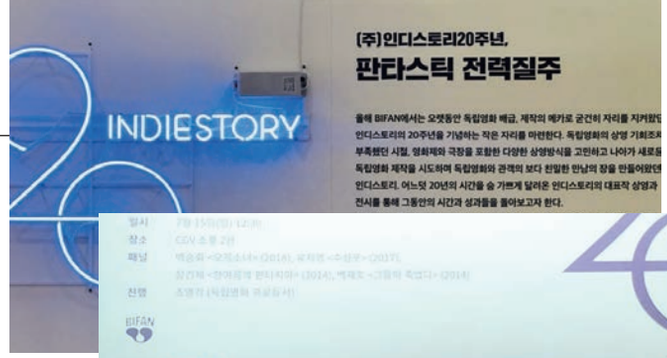
김화범: 분산 개최! 자체적인 영화제 대신 동료들과의 협업을 기획 중이다. 인터뷰 중인 지금, 7월 초 기준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와의 기획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와도 무언가 함께할 생각이다.

"갓 스물!"이 올해 인디스토리 키워드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김소나: 곽용수 대표가 미션을 줬다. 따뜻한 느낌이 나는 말이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의견도 받고 내부 회의도 해서 결정하게 됐다.

어떤 의미인가?

김화범: 이제 의미를 만들면 된다.(웃음)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진행된 인디스토리의 20주년 기념 전시와 메가토크 <한국독립영화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토크사진=인디스토리)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원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달라진다. 매체 자체도 바뀌었다. 지금은 모바일, IPTV, 다운로드 서비스 등이 영화를 소비하는 주 매체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디스토리의 주력 사업도 조금씩은 변화할 것 같다.

곽용수: 시장이 어려워져서 기대는 부분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방송과 VHS, DVD가 있었다. 지금은 부가 판권의 비중이 크다. 냉정하게 말하면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그나마 드는 비용을 기대는 정도다. 솔직히 극장 개봉이 잘 되지 않아서 몇 년째 누적 적자,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게. 영화로 수익을 어떻게 내야 하나?

그래도 배급은 꾸준히 이뤄진다. 배급작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다.

김화범: 단편배급은 인디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에서 확인하고 일주일 안에 회신한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배급 결정 회의를 연다. A팀, B팀으로 인원을 나누어서 A팀에서 선정한 작품을 B팀에서 다시 보는 교차 검토를 거친다. 특정 개인이 아닌 인디스토리라는 조직이 보고 배급 여부를 결정하는 거다. 인디스토리의 모든 국내와 해외 배급과정에 전직원이 참여한다. 단편에 대한 애정은 인디스토리의 시작부터 있었다. 인디스토리가 지속되는 한 단편 배급은 계속 할 거다. 단편을 배급한 감독의 첫 장편을 제작하는 선순환 구조도 이어가고 싶다.

곽용수: 배급 의뢰가 온 작품과 영화제에서 본 작품이 후보가 된다. 우선 일차적으로 내가 모든 작품을 본다. 애매하거나 논의해볼 만한 작품은 다 같이 본다. 제작한 작품은 당연히 배급까지 가는 편이다. '관객이 꽤 들 것 같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의미부여가 되는 작품을 주로 택한다.

모두 내부에서 논의해 결정한 배급작일지라도,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작품마다 느낌이 다를 것 같다.

김소나: 일단 재미있는 작품을 할 때는 GV 때마다 뒤에서 '엄마 미소'로 지켜보게 된다. 개봉하고 처음 관객을 만났을 때, 내가 감독은 아니지만 마치 내 작품을 선보인 듯한 뿌듯함이 밀려온다. 종영을 할 때도 감독만 작품을 떠나 보내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작별의 과정을 겪는다. 극장 개봉 업무를 맡으면 종영 이후에도 정산 등 처리할 게 많다. 마케팅을 맡는 나는 종영하면 끝이니까 그만큼 아주 헤어지는 기분이 든다. 개인적으로 감독과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뿌듯하다. 홍보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다. 반면 어려운 작품도 있다. 그럴 땐 곽용수 대표가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가 된다. 그 말에 집중을 해서 일한다. 사람인지라 좋아하는 작품을 할 때 가장 뿌듯하고 기쁘다. 그건 속일 수가 없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같다.

김화범: 영화 마케터 퇴사의 주요 원인이 하고 싶지 않은 영화를 맡아 힘들게 일하는 것이라더라. 스트레스 받고 자괴감이 들 거다. 영화는 그냥 상품보다 정서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해야 한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생산물인 만큼 마케터 또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옆에서 보면서 안쓰러울 때도 있다. 다 안다.

김소나: 작품과 별개로 감독이 좋을 수도 있고, 배우가 좋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뭐라도 하나가 좋아야 한다. 애써 찾는 것일 수도 있고.(웃음)

인디스토리와 다른 배급사의 다른 점은 뭘까? 차별점과 내세울 만한 점을 이야기해 달라.

김화범: 제작을 겸한다는 점? 다른 배급사들에 비해 꾸준히, 많이 해오고 있다.

곽용수: 국내, 해외 배급을 다 한다는 점이다. 토탈 서비스?(웃음)

김소나: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감독이 저작권 관련해서 물어볼 때가 있다. 우리는 제작팀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의논할 수 있다. 해외 영화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해외배급팀에 물어본다.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실무자 입장에선 좋다. 감독 입장에서도 편할 거고.

곽용수: 단편을 배급하기 때문에 젊은 감독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점도 좋다.

김화범: 단편에서 역량을 보여준 감독과 장편을 제작해서 개봉까지, 말하자면 인디스토리는 한 감독과 모든 걸 다같이 해볼 수 있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김종관, 백승화, 장건재 감독 등이 그런 식으로 인디스토리와 장편을 개봉했다. 내부적으론 직원 복지를 꾸준하게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마지막 주 금요일은 한 시간 일찍 퇴근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이벤트다.

김소나: 새로운 걸 제안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작은 조직이어도 경직된 곳이 많은데, 곽용수 대표는 의견을 잘 수렴해 준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이야기한다. 회의가 몸부림치게 싫거나 그렇지 않다.(웃음)

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있나.

김화범: 연혁을 정리하다 보니 2006년부터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와 '수요단편극장'을 해왔더라. 과거엔 금요단편극장이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요일을 옮겼다.(웃음) 한독협, 인디스페이스 등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인디스토리는 회사이지만 독립영화운동, 독립영화 진영과 발맞춰 고민하고 의견을 나눈다.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도 인디스토리의 색깔이라고 본다.

각자 기억에 남는 작품이 궁금하다.

곽용수: 10년 단위로 생각해보면,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송환>(김동원, 2003)을 준비할 때 영화와 나의 마음이 잘 맞았다. 극장 개봉 성과도 일정 정도 이뤘고 공동체 상영도 했다. <워낭소리>(이충렬, 2009)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을 보면, 인디스토리에서 제작한 영화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독 때문에 특히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 장편 애니메이션 <파닥파닥>(이대희, 2012)이다. 배급을 의뢰하는 감독의 간절함이 마음을 울렸다.

김화범: <그라운드의 이방인>(2015). 조은성 프로듀서를 비롯 다들 오랫동안 작품에 매달렸다. 중간에 3.11 동일본대지진이 있었고, 프로젝트가 밀리고, 주인공으로 염두에 뒀던 인물이 출연을 고사하면서 제작에 약 4년이 걸렸다. 이렇게 길게 고통 준 영화는 없었다. 그러니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다. 노상 회의록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고!(웃음)

김소나: 감독이 특히 기억에 남는 <소녀와 여자>(2015).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때였는데 김효정 감독 인터뷰에 동행하면 매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귀가 쫑긋 섰다. 보통은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기 마련인데 김효정 감독은 언제나 새롭고 주옥 같은 이야길 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작품으로 기억이 남는 영화는 <델타 보이즈>(2016)다. 사무실을 옮긴 후 한 첫 작품이고, 새로운 팀원들과 처음으로 합을 맞춘 게 기억에 남는다.

어떤 마음이 본인을 이만큼 끌어왔을까? 무엇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지 궁금하다.

곽용수: 새로운 영화, 새로운 감독을 만나면서 의미를 찾는 것 같다. 자극이 되니까. 그걸로 버틴다. 그게 모여서 돈이 되면 참 좋을 텐데.(웃음)

김화범: 즐거우면서도 힘들다. 이 영화 끝내면 다음 영화, 또 다음 영화가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감독과 이야기해서 시나리오를 잘 발전시켰을 때, 투자나 제작 지원을 받을 때 뛸 듯이 기쁘다. 잘 완성된 영화가 극장에 걸릴 때도 행복하다. 그런 순간이 주는 희열이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며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할 때의 기쁨도 크다.

김소나: 이렇게 좋은 영화를 배급해줘서 고맙다는 관객 코멘트에 뿌듯함을 느낀다.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직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모두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싶어진다. 내가 재미있게 봤으니까 다들 좀 봤으면 싶은 순수한 마음도 크고. 근데 역시 개봉 지원 받았을 때 제일 기쁘다. (웃음) 가장 힘든 순간은, 해보고 싶은 것이나 하면 좋을 것들이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제동이 걸릴 때다. 어떻게 돈을 써야 하나 끙끙대며 고민할 때 좀 슬프다. 그래도 기쁜 순간들이 모여 새로운 영화를 계속 굴러가게 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남겨달라.

곽용수: 다가올 11월 행사 인사말을 어제 잠깐 생각해봤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손님들을 환영한다는 의미, 관객과 감독, 관련 업체나 단체 등 같이 있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응원하며 지켜봐 달라는 의미다.

김화범: 혹시 여러 해 후에 이런 인터뷰를 또 진행하게 된다고 상상하면, 그땐 몸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영화는 계속 만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명을 잃지 않았으면!

김소나: 입사할 때 곽용수 대표가 내게 곧 20주년이니 그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꿈은 이루어진다!"(웃음) 나도 모두에게 그렇게 욕심을 부려본다. 건강하게 다음 생일까지 다같이 갔으면 좋겠다.

글&정리 / 이은지
사진 / 유수진

INDIESTORY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

정동진독립 영화제의 스무 해

담벼락 없는 작은 운동장에 에어스크린이 들어서면 마법처럼 완성되는 커다란 야외극장. 어둠이 찾아올 때쯤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람들과 사이사이로 피어오르는 모기쑥불. 이따금씩 스크린 너머로 기차가 지나가는 영화적 순간까지 경험할 수 있는 정동진독립영화제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스무 해를 맞이했다. 운동장 밤공기를 가로지르는 35mm 영사기 불빛에 사로잡혀 20년을 달려온 박광수 집행위원장과, 맥주박스를 쌓아 무대를 올리던 자원활동가로 시작해 이제는 정동진독립영화제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 송은지 사무국장을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만났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송은지: 올해 정동진독립영화제 사무국장을 맡게 된 송은지라고 한다. 2010년에 자원활동가로 정동진독립영화제를 처음 만났고, 대학 졸업 후 강릉씨네마떼끄(이하 떼끄)에서 활동하면서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이하 신영극장)과 정동진독립영화제 일을 하게 됐다.

박광수: 2001년부터 떼끄에서 활동한 박광수라고 한다. 2년 단위로 마이크돌이, 사무국장, 프로그래머 등을 도맡았다. 그리고 올해부턴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내가 집행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웃음)

정동진독립영화제를 만드는 다른 구성원 소개도 해달라.

박광수: 떼끄 스태프가 영화제 때면 영화제 스태프로 전환된다. 떼끄의 구성원은 비상근 대표와 상근자 네 명으로 총 다섯 명이다. 사실 신영극장과 정동진독립영화제를 모두 운영하기엔 빠듯한 인원이다. 그래서 영화제 때가 되면 신영극장과 영화제에서 자원활동했던 이들도 도와주러 오고, 개막 2주 전부턴 장기 자원활동가 '물라'가 결합해 일손을 보탠다. (정동진독립영화제 자원활동가는 사전부터 길고 굵게 활동하는 '물라'와 영화제 기간 동안 짧고 굵게 활동하는 '짤꾹'으로 나뉜다.)

송은지: 신영극장에서 영사를 담당하는 김슬기 스태프는 영화제 진행팀을 맡아 자원활동가를 통솔하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책임진다. 영화제 기간 중 비가 오면 실내 영사를 준비하기도 한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떼끄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현임 스태프는 영화제 때는 초청팀 역할을 하며 부스에서 게스트들을 맞이하고 안내한다.

정동진독립영화제가 처음 만들어지던 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박광수: 1995년 즈음이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불리지 않나. 씨네21, 키노, 부산국제영화제 모두 그 시기에 처음 생겼다. 그러다 1997년을 기점으로 영화발전기금이 생기면서 지역 축제마다 영화 상영이 포함되며 일종의 영화제라고 할 만한 것이 무수하게 생겨났다. 특색 없이 영화제의 개수만 많아졌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그때 변영주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 "영화제는 동네마다 있어야 한다"고. 말도 안 되지만 참 멋있지 않나. 나 뿐만 아니라 떼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모두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어느날 갑자기 영화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영화계의 분위기와 떼끄의 발전 경로 사이에 정동진독립영화제의 탄생이 있었다.

떼끄가 처음 생기던 96년엔 강릉에서 볼 수 없는 영화가 많았다. 불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 어두운 경로를 통해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우리끼리 보긴 아쉬우니까 크고 작은 상영회를 열다 마침내 영화제를 해보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됐다. 강릉씨네마떼끄는 다른 지역 시네마떼끄와 달리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와 가까웠다. 당시 한독협 사무국장이었던 조영각 프로듀서와 홍수영 전 사무차장, 강릉씨네마떼끄의 창립멤버인 김태환 전 대표, 김동현 떼끄 회원(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모이면 늘 하는 소리가 '우리도 영화제 하나 만들자'였다. 영화제가 넘쳐나던 그 시기에 좀 더 특별한 영화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국내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야외영화제 콘셉트를 갖게 되었다.

정동초등학교가 영화제 장소가 된 배경이 궁금하다.

박광수: 야외 상영이 가능한 장소를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다. 장소 물색팀이 거의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쯤 마지막으로 정동진역 근처에 위치한 정동초등학교를 갔다. 운동장에 들어서자마자 '왜 이제야 여기 왔을까' 싶었다고 한다. 교정이 정말 예쁘고, 건물 앞으로는 도로가 나 있고, 반대편으로는 논과 산이 있으니 상영을 위한 빛 차단까지 완벽하게 가능했다.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은 영화제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하기 이전의 상영환경은 어땠는가.

박광수: 1~3회까지는 영화제 3~4일 전부터 학교에 들어가 직접 쌓아 올린 건설비계에 합판을 붙이고 페인트칠을 하여 스크린을 만들었다. 음향기기들은 지역의 이벤트 업체에서 빌리고, 한독협의 16mm 영사기와 대여해 온 35mm 영사기를 1톤 트럭에 싣고 와 그대로 상영을 했다. 당시의 한독협 조영각 전 사무국장과 원승환 전 배급팀장(현 인디스페이스 부관장)이 번갈아가면서 16mm 상영을 했는데, 1톤 트럭은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트럭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화면이 출렁거리곤 했다. 굉장히 열악한 상영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하는 사람 하나 없었다. 일회용 스크린이었기 때문에 영화제가 끝나는 마지막 일요일에는 락카로 스크린에 낙서를 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에어스크린은 어떻게 정동진으로 오게 되었나.

박광수: 2002년 단오제 때 당시 강릉문화의집 김문란 실장이 '단오극장' 프로그램과 홍보 기획을 떼끄에 제안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가져온 상영장비 일체로 우리가 프로그램한 영화를 상영했는데, 거기서 처음 에어스크린의 위용을 맛봤다. 그때 정동진독립영화제를 알게 된 한국영상자료원이 흔쾌히 정동진으로 에어스크린과 음향기기, 35mm 영사기를 가져와 영화제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 그런데 하필 그 해에 대폭우가 쏟아져 영화제 3일 중 이틀을 실내 상영하고, 빗속에서 에어스크린이 터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폭우로 진흙탕이 된 운동장에서 에어스크린을 빼내기 위해 견인차를 불렀는데, 한 대로 안 되어서 네 번째 차가 왔을 때에야 간신히 스크린을 꺼낼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엔 비가그치자마자 반나절 만에 다시 건설비계를 쌓아 합판으로 스크린을 만들어냈다. 그날 첫 상영 작품이 <마리이야기>(2001) 였는데, 솔솔 부는 바람 사이로 35mm 영사기에서 불빛이 나가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정동진독립영화제를 좋아하고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동진독립영화제

아마 다 그 날의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기동전사 건담>의 명대사 '중력에 사로잡혀 지구를 못 벗어나는 불쌍한 인간들이여'… 이게 딱 나와 영화제를 두고 하는 말 같다.(웃음)

영화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우산살 소녀'의 탄생이 궁금하다.

박광수: 농반진반으로, 당시에는 일을 다 만담 식으로 진행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낮부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퇴근 후부터 떼끼에 모여 만담을 했다.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술 마시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영화제가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 갔다. 말하자면 브레인스토밍으로 수많은 아이템이 탄생한 거다. 때문에 저마다 자기 의견이라고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웃음) 우산살 소녀도 6회 때 그렇게 탄생했다. 우리 영화제에도 상징이 있었으면 했는데, 당시 우리가 가장 무서워 한 게 비였다. 야외영화제니까. 그래서 비와 연결지어 주술적인 의미를 담자고 이야기하다가 우산 아닌 우산살을 들고 있는 소녀가 탄생했다.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 자체를 어쩔 수는 없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우산살만 남겨둔 것은 비가 와도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볼 것이라는 의미다.

운동장에 피우는 모기쑥불은 어떤가. 모기쑥불 없는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모기쑥불 원정대는 어떻게 결성하게 됐나.

박광수: 처음엔 쑥불을 피울 요량으로 6.25때 전쟁이 온 줄도 몰랐다는 그야말로 '웰컴 투 동막골' 강릉 무현동에 찾아가 쑥을 캤다. 지금은 제대로 된 긴 쑥을 베어서 쓰지만, 그때는 회원 십여 명이 모여 요령도 없이 자잘한 약쑥을 캤다. 한 트럭 가득 쑥을 캐고 녹초가 되어 돌아왔는데, 정작 그 해에 비가 와서 그 쑥은 써 보질 못했다.(웃음)

송은지: 자원활동가 중에는 처음부터 쑥불 피우기가 로망인 이들도 있다.(웃음) 따로 교육은 없는데, 몇 번 불을 내 보면서 금방 익히곤 한다.

박광수: 요새는 쑥불을 피우면 시야를 가리거나,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게다가 영화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쑥불을 피울 자리까지 관객이 들어와 쑥불이 밀려나고 있다. 사실 모기 퇴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영사기의 불빛과 쑥불 연기의 조화가 끝내주지 않는가!

정동진독립영화제만의 수상 방식인 '땡그랑 동전상'도 브레인스토밍으로 나온 아이디어인가?

박광수: 우산살 소녀, 땡그랑 동전상, 모기쑥불 원정대, 슬로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 때 떼끼에 백수들이 가장 많아 브레인스토밍이 활발했다.(웃음) 영화제를 하면서 우리끼리 상도 주면 어떨까 했는데, 상금이 없으니까 관객들로부터 십시일반하면 어떨까 했다. 가장 재밌게 본 작품에 관객이 직접 동전을 넣어서, 가장 많은 동전을 받은 영화가 수상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처음에는 맥주 캔을 두고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넣는 게 쉽지 않더라. 방식은 같되, 형태만 바뀌어가며 현재 모습이 됐다.

가장 금액이 컸던 수상작이 궁금하다.

박광수: 작년 이옥섭 구교환 감독의 <걸스 온 탑>으로 상금이 30만원이 넘었다. 동전 개수 최다였고, 금액도 최고였다. 영화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년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 가끔 배급사나 감독 지인들이 동전을 잔뜩 바꿔와 쏟아 붓는 경우가 있는데, 몇 번 지켜보니 그런 영화들은 결국 상을 못 받더라. 절대 이기지 못할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동전을 받은 영화에게 상금을 몰아주기 때문에 상금 총액만 높여주는 꼴이다.(웃음) 공정성에 대한 고민은 없잖아 있지만, 그냥 동전을 던지는 사람과 받아가는 사람의 재미라고 생각한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상금이 3~4만원 밖에 안 됐다. 구교환 감독은 2011년에 <거북이들>로 상금 4만 7천원을 받아 이듬해 텀블벅에서 받은 금액 그대로 후원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땡그랑 동전상으로 모이는 금액이 확 높아졌다.

대략 언제부터 관객이 많아졌다고 보는가.

송은지: 이번에 20주년 에세이집을 준비하며 사진을 찾아보니 2014년 이전과 이후 운동장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해마다 금, 토요일 붐비는 시간대에는 800명 안팎의 관객이 든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폭발한 이 인원이 10시 넘어서까지 유지가 되더라. 심지어 최근엔 순간관객이 1,000명을 넘기기도 한다.

동네 주민부터 여행객까지 관객층이 다양하다. 프로그램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박광수: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 야외영화제이기 때문에 심의로 말하자면 전체관람가, 내용으로 말하자면 과다폭력 과다노출만 없으면 된다. 공포물은 상관이 없는데, 스크린에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 운동장이 발칵 뒤집어지면 그게 참 짜릿하다.(웃음)

신작 중심의 영화제다. 더 욕심나는 프로그램은 없는가.

박광수: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관객들에게 우리나라 독립영화의 가장 최신 흐름을 보여주고자 한다. 올해 약 900여 편의 공모작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겨우 26편을 선택할 수 있었다. 밤 8시부터 12시 사이에만 상영할 수 있는 야외영화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기로 한 가치 외의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헌데 올해는 늦은 상영이 부담되어 2섹션만 상영하던 일요일 늦은 밤에 한 섹션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의 최신 독립영화 흐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영화적인 또 다른 체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그렇게 올해 일요일 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상영을 결정했다.

정동진독립영화제가 단단히 자리를 지키는 동안 야외영화제가 많아졌다. 정동진독립영화제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광수: 해마다 영화제 전날 인터뷰를 하는데, '올해 영화제는 무엇이 다릅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상영 영화는 매년 달라져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답한다. 1999년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 영화제의 사이즈, 관객의 숫자, 상영 편 수 등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렇지만 정동초등학교에서 영화를 보는 그 느낌만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굳이 말하자면, 소박함? 20년 동안 이 영화제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가치이자 정동진독립영화제만이 가진 '느낌'이다. 달라질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지금처럼, 언제나처럼'을 선택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후회할 만한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다. 결국 다른 영화제와는 예산의 차이가 아니라 느낌의 차이다. 다른 영화제가 왜 굳이 돈을 써서 소박함을 따라하겠는가.(웃음)

정동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을 때 이야기가 궁금하다.

박광수: 학생 60명 미만의 학교를 폐교 및 통폐합하는 정책이 있었다. 정동초등학교도 그 대상이었다. 우리 영화제도 걱정이지만, 정동초등학교가 없어지면 아이들은 면 소재지까지 등하교를 해야 했다. 모교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던 학부모들이 시내에서 아이들을 전학시키기도 했고, 우리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도 학생 수로 학교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결국엔 학생들의 열악해질 등하교 환경을 고려하여 정동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화제와 학생들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20주년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송은지: 독립영화 감독 강연 프로그램 '5교시 영화수업'이 열린다. 꾸준히 자신의 영화를 찍는 이들인 구교환•이옥섭 감독과 김일란•이혁상 감독이 정동초등학교 교실에서 독립영화 만들기와 그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기억과 영화제의 기록을 연결하는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 - 정동진독립영화제 20주년 에세이집』을 제작하고 있다. 추억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20주년이라니, 30주년도 미리 생각해 보자. 정동진독립영화제의 10년 후는 어떨 것 같은가.

박광수: 최근 들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이 일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고 느낄 때 과감하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 건데, 그동안은 무조건 '이겨내야지'라고만 생각했다. 사실 우린 당장 내년에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처한 입장이 그렇다. 누군가는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없게 한 원인을 탓해야 할 것이다. 그저 진심을 다해서 올해 영화제를 잘 해내고, 내년 영화제를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송은지: 우리 영화제는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정동진독립영화제'다. 10년 뒤, 그리고 그 후에도 변함없이 이 결코 작지 않은 소박함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동초등학교는 비교대체가 불가능한 정말 멋진 상영관이니까.

박광수: 정동진독립영화제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했던 초반의 브레인스토밍 폭발의 시기가 다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원영상위원회와 협업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떼끄의 구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송은지: 올해도 비 없이 무사히 영화제를 마칠 수 있길. 꼭 다시 찾고 싶은 영화제로 기억에 남을 수 있길.

박광수: 일요일 새벽이 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점점 영화제가 끝나는 날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야외에서 일하는 시점이 되면 이미 영화제가 궤도에 올라 있어 기세라는 게 생긴다. 운동장에 내려 짐 부리는 순간 그야말로 내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때의 기대감과 설렘이 끝나는 날의 기쁨보다 더 크게 남길 바란다. 우리가 신나게 준비해야 관객들도 신나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

글&정리 / 김도란

사진 / 김지은

연대와 실천의 힘으로 전진한다

한국독립 영화협회

7월 중순,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와 이지연 사무국장을 만났다. 두 사람에게 한국독립영화협회 20주년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건네니, 자신들은 그저 흘러왔노라고 덤덤하게 대답한다. 그들과 함께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걸어온 시간을 더듬다 보니 독립영화의 역사가 그려졌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있었다는 자명한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연대와 실천의 시간들. 한국독립영화협회의 20주년이 값지고 반가운 이유다.

각자 소개를 부탁한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재다. 1996년부터 영화를 시작했는데, 한독협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2001년에 김동원 감독으로부터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준비팀에 결합해 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부터다. 이후 미디액트 창작지원실장을 맡으면서 2003년 한독협 중앙운영위원으로, 2006년 '한미 FTA저지 독립영화실천단장'으로 활동했고, 2007년부터는 한독협 사무총장으로 4년간 일했다. 잠시 공백기를 가졌다가 2015년 한독협 이사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지연: 한독협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지연이다. 2000년 서울퀴어아카이브 정기상영회 자원활동가를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2001년 지금의 서울독립영화제의 전신인 한국독립단편영화제 스태프로 참여했다. 이후 2002년 한독협에서 발간하는 계간『독립영화』의 편집기자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독협 내외부의 여러 사업에 참여했다. 2007년 고영재 대표가 사무총장이 되었을 때 나는 사무국장의 직함을 달았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손발을 맞춘 것은 대략 2007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고영재: 2007년, 원승환 전 한독협 사무국장과 한독협 사무국 인력이 대거 인디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독협 내부에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단순하게 사무국을 재편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디어센터, 상영관, 영화제를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역할을 제안 받아, 사무총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사무총장을 맡을 당시엔 기존의 사업을 안정화하기에도 벅찬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가지 일을 저지르듯이 추진했는데, 대표적인 게 사무실을 지금 서울독립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과 함께하는 단독 공간으로 이전하는 거였다. 그 당시 이지연 사무국장은 '정말 이전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웃음)

계간 독립영화 창간호(1999)와 38호(2009)

현재 한독협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지연: 없다. 2007년에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이후에는 없어졌다.

고영재: 그 시기에는 한독협이 사무총장이라는 직급이 필요한 구조였다. 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영화제 사업 등을 하면서 각각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나갈 때였다. 그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필요했던 거다. 그런데 2009년 독립영화를 두고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면서 미디액트, 인디스페이스, 서울독립영화제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중 일부가 한독협 사업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독협이 총괄해야 하는 사업들이 없어지게 된 거다.

다가오는 9월 18일이 한국독립영화협회 20주년이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고영재: 우선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오른다. 그 뜻을 잘 전달하고 살았는지 되돌아 보게 되는 요즈음이다. 10년 전을 돌이켜 보면 한독협을 중심으로 배급협동조합, 공동체 상영, 수많은 제작프로젝트 진행, 대안 상영, 미디어센터 등에 대한 논의와 실천들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 시절에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강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독립영화 진영 내외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맡은 바 일을 했던 활동가들이 없었다면,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새롭고 큰 행사를 기획하는 것보다는 한 분 한 분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

이지연: 한독협 1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사업을 크게 했었다. 기념행사도 1주일 동안이나 했고, 영화도 만들었고, 세미나와 포럼도 열었다. 2009년에 감사를 받은 이후, 2016년까지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버티기의 연속이었다. 그야말로 '생존'이라고 할까. 그 기간 동안 독립영화는 정책, 제작, 배급, 상영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당하고 거부당했다. 그 시기를 함께 버텨낸 사람들과 20주년을 맞이해서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주고받았으면 한다.

20주년 기념행사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

이지연: 창립일인 9월 18일에 맞추어서 기념식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회가 있을 거다. 한독협뿐만 아니라 정동진독립영화제, 인디스토리 또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독립영화 2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상영회를 기획하고 있다. 비슷한 주제로 서울독립영화제 기간에 세미나와 포럼도 마련할 계획이다.

평소에 많이 받는 질문이겠지만 이 기회에 또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어떤 곳인지 말해 달라.

이지연: 한독협은 독립영화인들로 구성된 단체이자 독립영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독립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과 같은 영화제를 개최하고, 비평지 『독립영화』를 발간하고, 독립영화 정책에 대한 제언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에 독립영화 환경과 정책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 이 외에도 독립영화인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고영재: 한독협이라는 조직은 한국 사회 내에서 유효한 특정 의제에 동의하는 주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라고 생각한다. 대략 10년 전부터 영화계에 여러 조합이 생겼다. 감독조합, 시나리오 작가조합, 마케팅 협회, 수입배급사 협회 등이 그런 경우인데, 그 단체들은 직능별 조직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한독협은 제작, 배급, 상영, 비평 등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직능이나 포지션을 초월한 단체에 가깝다.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의 이해관계들을 포괄하다 보니 요구되는 사업들도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한독협이 시대적 국면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던 것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

고영재: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고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독협 회원으로도 열정적으로 활동한다면, 그는 분명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다. 영화를 통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영화 제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하고, 배급하고, 비평하는 그 모든 활동을 다 아우른다.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강정, 한미FTA, 4대강 등을 주제이자 핵심으로 한 제작프로젝트가 협회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배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있었다.

이지연: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안별로 조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한독협은 처음 생길 때부터 독립영화가 무엇이며,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지해야 하고, 누구와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해왔다. 시대별로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비정규직, 환경 문제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내부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회원들의 의견과 관심사를 수렴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한독협 차원에서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나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지연: 사회적으로나 영화적으로나 '적폐청산'이지 않을까. 딱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OO_내_성폭력' 운동이 미투운동으로 확장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독협 내부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진영 전반에 걸쳐서 성평등 인식을 정착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 초 한독협 총회에서 회원들의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내규를 개정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영재: 4.16 이후가 상징적으로 다가온다. '가만히 있어라', '이게 나라냐'가 구호가 된 순간들. '가만히 있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게 버티면서 이빨 부득부득 갈고 있던 사람들에게 비수처럼 꽂혔을 거다. 독립영화 20년을 관통하는 상징은 기록과 저항에 있다. 독립영화인들이 블랙리스트에 민감하게 대응한 것은 단순히 그것이 직접적으로 독립영화를 배제하고 탄압한 걸 보여주기 때문만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 국가 검열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최근의 미투운동, 노동, 평화, 환경 등의 사안도 단일한 활동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한독협이 건강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활동과 함께 내부에서의 만남과 결속도 중요할 것 같다.

고영재: 한독협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같은 과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다. 회원들 간의 다양한 관심사와 실천의 방향들을 내부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

지속 가능한 만남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무국이 아닐까 하는데.

이지연: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보니 회원 모임, 네트워크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분과별 모임이 있지만 분과별 편차도 크고 회원들 간의 관심사도 다양하다. 하지만 사무국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만으로도 일정이 벅찬 경우가 많아서 '독립영화의 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운영위원들과 논의한다. 당시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한 간담회, 포럼을 진행하거나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기획한다. 작년부터는 회원 뿐 아니라 한독협, 독립영화에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까지 확대해서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실무적 부담 이전에 성평등 환경을 많이 고민하게 되면서 한독협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졌다. 우리의 모임 문화, 우리의 언어습관 등등.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을 개선해가야 하지 않을까. 회원이든 활동가든, 그 누구에게든 불편하지 않은 모임과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한독협 활동하면서 보람 있었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이지연: 매 순간마다 힘들었고, 매 순간마다 감동을 받았다. (웃음) 한독협이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게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동료, 선배, 후배, 그리고 후원자들이 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고영재 대표는 이전에 2년 동안 한독협이 쓰고 있는 공간의 임대료를 내준 적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의 셀 수 없는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독협이,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걸 테고.

고영재: 외부의 탄압보다는 독립영화 내부의 여러 갈등이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사람 때문에 힘도 나지만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기도 한 것이 결국 삶이 아닐까 싶다. 보람 있었던 순간은 너무나 많다. 미디액트와 인디스페이스가 오픈하던 날, 한 해 한 해 서울독립영화

제와 인디다큐페스티발이 개최될 때마다, 정기상영회나 '독립영화의 날'을 여는 순간, 『독립영화』를 발간할 때마다 등등. 무엇보다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한독협으로 인연을 맺은 회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다. 그때마다 절로 미소가 나온다.

한국독립영화 창립선언서는 '독립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 질문이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고영재: 유효하다. 누가 독립영화가 어렵다면서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고 말할 거다. 영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완결된 이야기를 정제된 언어로 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 대답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것을 둘러싼 다른 것들은 계속 변한다. 독립영화는 영화 앞에 독립이라는 말이 붙는다. 그건 기존의 영화들 가운데서도 주류의 표현 방식과 다름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독립영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독립영화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영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와중에 독립영화를 만나고 '내가 하는 영화', '내가 하고 싶은 영화'가 이것이구나 하게 되는 것이라면 말이다.

이지연: 한독협 창립선언문이 나온 이후 일어난 많은 변화의 순간마다 '독립영화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독립영화에 관해 토론하고 그 안에서 한독협의 활동을 고민하면서, 독립영화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내 활동의 근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영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글&정리/ 이도훈

사진 / 이예지

한국독립영화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Independent Film & Video

다른 영화 말고 너

장건재, <한여름의 판타지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독립영화와 맞닿아있는 독립영화인들이 '단 한편의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코너. 때로는 그리운 첫사랑이, 특별한 추억이, 다정한 조언이 되었던 사사로운 독립영화 리스트

2014 / 97min / 극영화
출연: 김새벽, 이와세 료, 임형국
상영: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심사위원특별언급
제35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국제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
제16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각본상
제44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제38회 예테보리국제영화제
제03회 무주산골영화제 뉴비전상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제03회 들꽃영화상 촬영상

그날, 그때, 그 여름이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 원고를 부탁받았다. 코너 소개글 '때로는 그리운 첫사랑이, 특별한 추억이, 다정한 조언이 되었던 사사로운 독립영화 리스트'를 읽고 먼저 떠오른 게 그 친구인지, 이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다. 거의 동시에 생각이 난 듯하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마주친 첫사랑이었고, 이 영화는 그와 우연히 다시 만난 그해 여름 개봉해 같이 보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던 <한여름의 판타지아>다.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2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첫사랑, 요시코'는 영화감독 태훈(임형국 분)과 조감독 미정(김새벽 분)이 일본의 지방 소도시인 고조 시에서 영화를 찍을 계획으로 사전 답사를 하며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이다. 이어지는 2부 '벚꽃 우물'은 1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태훈의 영화처럼 보인다. 1부에 나온 조감독 미정과 고조 시를 안내한 공무원 유스케(이와세 료 분)가 2부에서는 각각 고조 시로 여행을 온 '혜정'과 혜정에게 호감을 표하는 감 농사꾼 '유스케'로 등장해, 1부와 2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묘한 조화를 이끌어낸다.

1부 '첫사랑, 요시코'에서 태훈과 미정이 만난 사람들은 고조에 얽힌 각자의 인생을 회상하며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다. 첫 장면에 등장한, 4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노부부는 장사가 잘 안 되어 연금으로 생활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전에 했던 야채가게와 파친코 가게를 웃으며 추억한다. 배우를 하고 싶었으나 꿈을 접고 고조 시의 공무원이 된 '유스케', 카페 주리의 마담이 예뻐서 수십 년 동안 단골이었다는 '손님', 어린 시절 첫사랑인 요시코를 추억하고 있는 '겐지' 모두 저마다의 시간을 이야기한다. 아마도 그 시간은 이들의 삶에서 가장 반짝였던 때가 아니었을까? 사진 속 어린 겐지가 요시코를 바라볼 때 포착된 첫사랑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가게를 하며 미래를 꿈꾼 노부부의 젊은 시절, 배우의 꿈을 꾸며 나아갔던 유스케의 학창시절, 마담을 보기 위해 카페에 머물렀던 손님의 시간 모두 첫사랑의 감정과 비슷한 설렘을 지니고 있다. 1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첫사랑을 기억하듯 그 시간을 그리워하며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다.
2부 '벚꽃 우물'은 1부에 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이 '현재'의 이야기로 재탄생된 로맨스 영화다. 아무것도 없는 도시를 여행하고 싶어 고조 시를 찾은 혜정은 감 농사를 하는 청년 유스케를 우연히 만난다. 관광객에 대한 잠깐의 호의로 끝날 줄 알았던 둘의 만남은 다음 날 혜정이 유스케에게 마을 안내를 부탁하면서 다시 이어진다. 함께 마을을 걷는 둘 사이에는 긴장감과 편안함이 어우러진 미묘한 감정이 자리 잡는다. 이들의 만남을 간질간질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건 두 사람을 감싸는 공기의 마법 덕택이기도 하다. 유스케가 혜정에게 농담처럼 건낸 '벚꽃 우물'에 얽힌 전설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언제고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 환상을 주어서다.

마지막 순간, 두 인물은 각각 혼자가 되어 밤하늘의 불꽃을 바라본다. 그 아름다움을 눈과 마음에 담고 그저 바라본다. 짧은 순간은 금방 지나가지만, 짧아서 더 아름다웠던 그날, 그때, 그 여름의 설렘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3부에서는 어떤 판타지아가 펼쳐질지 나만의 상상을 멋대로 펼쳐본다.

글 / 김우진(독립영화스튜디오 무브먼트 사원)
좋아하는 걸 좋아만 하기에도 생은 짧기에,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무궁무진 김우진입니다.

독립영화'관'

독립영화란 무엇일까?

독립영화가 정말 뭔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확히 설명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사랑하고 널리 알리고 싶은 이 독립영화라는 것이 참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내가 애용하는 설명은 '상업적 성공에 목적을 두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가 온전히 내포된 영화' 정도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아주 정확하진 않다. 극장 개봉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독립영화가 어찌 상업적 성공(적어도 최소한의 금액 보전)이라는 희망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 반대로 상업영화라고 해서 모든 영화가 창작자의 의도를 무시한다는 일반화 역시 힘들 것이다.

2년 동안 독립영화를 곁에 두고 소개해 오면서도 독립영화에 대해 설명하기란 날이 갈수록 힘들다. 그보다 더 답답한 건, 이 모호한 정체성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 작게 만든 영화', 또는 '극장에서 잘 개봉하지 않는 영화'라는 부정적 생각을 내면화한 느낌이랄까. 그냥 그런 느낌의 영화, 안물안궁. '일제로부터 독립 과정을 다룬 영화냐' 라는 거짓말 같은 질문도 들은 적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만큼 독립영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전하지 못한 것이다. 정말 좋은 영화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대규모의 자본도, 힘도, 극장도 없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독립영화가 관객에게 닿기 위해선 친절한 설명과 우리 나름대로의 촘촘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춘천에는 생길 리 만무하다 생각했던 독립책방이 지금 세 곳이나 영업 중이다. 작년에는 책방들의 인기에 편승해 독립영화를 소개해보고자 '책방순회상영'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같은 독립전선(?)이 생겨났음에 마음 한 켠이 든든하다. 3+1. 이렇게 독립책방이 성행하는 것은 결국 소통의 의지요, 다양성의 산물이라고 믿는다. 동네에 작은 영화관들이 생겨나고 소소한 영화를 함께 즐기는 상상을 해본다. (적고 보니, 소소한 영화? 괜찮다.) 책은 되는데 영화라고 안 될 이유는 없지. 독립출판의 사례가 그대로 적용될 순 없겠지만, 앞으로 다음과 같이 독립영화를 알려볼까 한다.

[독립영화란?]

1. 동네 작은 영화관(이라 쓰고 일시정지시네마라 읽는다)에 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영화
2. 내 주변,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
3. 공간을 중심으로 감독과 영화, 관객을 연결하는 영화

독립영화를 아우르고 있는 다양한 요소 중,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단연 '관객'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이니 긴긴 변론은 생략하겠다. 공간을 운영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해봤다. 감독의 방문도 너무나 고맙지만, 그보다 독립영화를 접한 경험이 적은 관객이 고민과 편견을 이겨내고 공간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이 가슴 벅차다. 독립영화가 모두에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집 앞을 산책하다 잠깐 들러 볼 수 있는 영화. 언제까지 유효할진 모르겠지만, 당분간 나의 독립영화 '관'은 너로 정했다!

글 / 유재균(일시정지시네마 주인장)

전국 어디에나 독립예술영화가 가득하길!

FEATURE

무슨 영화를 보려고

중국 퍼스트국제청년영화제 방문기

저는 중국 시닝에 왔습니다. 못해도 세 달 전부턴 마음을 먹은, 퍼스트국제청년영화제 방문을 위해서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몸을 순간이동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실은 이 여행은 엉망진창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일 년간 살았던 기숙사에서 짐을 뺐습니다. 모으기만 잘하고 버리기와 정리하기는 못하는 사람답게 난장판 가운데서 울다가 겨우겨우 에코백에(이정도로 에코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전혀 에코 프렌들리가 아닐 것 같은데) 남은 잡동사니를 우겨넣고 택시를 타서 아직은 한산한 상하이 기차역 매표소에 내렸을 때까지만 해도.. 거참 이게 되긴 되는구나 어정쩡한 기쁨 내지는 흥분(약간 우쭐함마저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여권번호를 잘못 써서 예매해둔 기차표 발권을 할 수 없다지 뭐예요. 중국의 기차는 워낙 탑승객이 많아서 아주 짧은 구간을 가는 것이 아닌 이상(종종 그 짧은 구간 역시) 당일 표를 구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영화제를 가야겠다고 진작 마음을 먹고 예매가 시작된 한 달 전 티켓팅을 해서 겨우 산 침대칸 자리였지요. 마음이 급하다못해 익숙한 숫자라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가 제가 저에게 봉변을 당한 셈입니다. 현장 티켓은 당연히 없고, 기존 티켓은 발권도 여권번호 수정도 할 수 없고, 취소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바로 예매할 수도 없다고 하고, 매표소 바닥에 앉아서 망연자실해 있다가 문득 환승을 하면 어떻게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무작정 상하이에서 난징 가는 열차를 끊었습니다. 난징까지 입석으로 네 시간을 간 뒤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난징남역으로 가서 정저우동역까지 네 시간 고속철을 타고, 정저우동역에 내려서 또 택시를 타고 정저우역으로 가서 다시 입석 기차를 타고 열여섯 시간 동안 달려 시닝까지 가는… 가는 내내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와중에도 '그렇군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사실이니까 아주 맞는 말이다, 이것을 이 여행의 제목으로 하자' 같은 생각을 했고요. 열차칸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가, 칸과 칸 사이 통로에 서 있다가, 빈 자리에 냉큼 앉았다가, 상냥한 이웃 승객이 당겨 앉아 마련한 틈바구니에 껴서 앉기도 했습니다. 돌산, 평원, 강가를 지나며 변하는 창밖 풍경과 옆에 앉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연착된 기차는 다섯 시쯤 시닝역에 도착했습니다. 딱 서른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다닥 대합실을 가로질러 택시를 타고 숙소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당장 완다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그래요, 영화를 보려고…) 도착한 날 7시 30분 영화를 미리 예매해두었거든요. 그렇게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검색엔진과 SNS의 아웃소싱으로, 유해컨텐츠 모니터링을 하는 필리핀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더레이터'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더 클리너스>를 보았습니다. 테러, 성범죄,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접해야 하지만 정신건강을 위한 복지를 받을 수는 없는 이들의 지난한 시간을 보고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는 여덟 시가 막차임을 발견하고) 또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가면서, 시닝 관광을 온 사람들은 다 간다는 칭하이호는 이백 킬로미터 넘게 떨어져 있다는 기사님 말에 그렇군…… 나는… 겸사겸사 관광은 무슨, 그냥 영화를 보러 왔군! 씩씩하게 납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시닝에 왔습니다. 어디 호수에도 산에도 가지 않고 영화제를 위해서요. 영화 상영 전 반복 재생하는 영상에 자원활동가가 "나는 오로지 퍼스트를 위해 시닝에 왔다!"고 외치는 장면이 들어간 것을 보면 자원활동가가 해도 주목 받는 행위인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대단하게 대단한 영화를 봐야겠다 다시 주먹을 불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의 공식 명칭은 퍼스트국제청년영화제입니다. 보통은 '퍼스트'라고 부릅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았고, 매년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칭하이성의 성도 시닝에서 열립니다. 시닝은 시내에서 차를 타고 달리면 바다만큼 넓은 호수와 영화 <커커시리>로 알려진 커커시리 자연보호구역 등을 갈 수 있고, 제가 탑승한 택시의 기사님에 따르면 "고작 1000km만 더 가면" 둔황석굴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특색을 살려 이전에는 칭하이호 부근에서 야외상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을 비롯한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외상영을 포함한 전 상영은 시내의 완다광장 부근의 극장 세 곳과 차가 다니지 않는 야외공간에서 엽니다.

이름처럼 젊은 감독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 이 영화제는 중국 국내작과 해외작이 모두 공모 대상이며, 장단편 경쟁부문과 일종의 초청부문인 '큐레이션' 섹션을 상영합니다. 올해는 1300여편의 작품이 공모되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피칭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어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올해는 차이밍량 감독을 멘토로 한 단편영화제작 캠프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상업 장편으로 입봉해 화제를 모은 감독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퍼스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영화를 상영했다고 합니다. 퍼스트 자체는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퍼스트를 거쳐간 감독들이 성공적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것은 눈에 띌 정도입니다. 사실 4월의 어느 날 친구가 "중국에서 잘 운영되는 독립영화제라고 하면.. 퍼스트 정도 있나?"라고 한마디 했던 것을 유일한 단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저로선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서울독립영화제를 떠올리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마치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난 듯이 혼자 내적 친밀감으로 탑을 쌓고 왔습니다. 닮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러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무료상영이 가능한 인프라였습니다. 놀랍게도 퍼스트는 전 상영이 무료입니다. 개막 일주일 전 온라인 예매창이 열려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일종의 예약금 개념으로, 폐막 후 결제금이 환불됩니다. 무료상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료상영을 해도 괜찮은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일 텐데, 어떤 이유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무슨 영화가 수상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지도, 영화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유심히 보지도 않고(사실 극장에 설치된 포토월과 시트지, 현수막 사진을 자꾸 찍다가 너무 시찰 나온 사람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냥 놀러온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 이 영화제가 마음에 든 까닭은, 물론 영화도 재미있게 보았지만, 자원활동가가 행복해 보여서였습니다. 시간표를 뽑아서 줄을 치고 메모를 하는 이들과 바쁜 기념품 판매대와 소란스러운 관객들 사이에서 상기된 얼굴로 종종걸음하는 자원활동가들의 활력이 반갑고 좋았습니다. 매 상영 전 자원활동가 모집 홍보 영상을 틀어주고, 영화제 스케치 영상에서도 자원활동가 인사와 객석의 기립박수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유명 배우들이 매년 '대사'가 되어 영화제를 홍보하는데도, 그 이상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자원활동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매표와 수표, 기념품 판매 및 안내 외에도 자원활동가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상영 후 관객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각 회차 상영이 끝나면 프로그래머 또는 자원활동가가 그날그날의 사회자가 되어서 상영 후 관객과 짧게 의견을 나눕니다. 솔직히 자원활동가가 진행할 때가 훨씬 재밌습니다. "이 영화는 베를린에서 처음 보았는데 당시 주목을 받았다"는 정보보다 "이 영화는 자막이 없어요! 영어듣기 테스트예요! 그치만 영화는 종합예술이니까 못 알아들어도 재미있지 않을까요?"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의견 나누기 시간은 GV와 달리 정말 사적인 이야기를 목적 없이 할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나다 카딕의 혼란스러운 인생>을 관람했을 때입니다. 의사로부터 '자폐인 것 같지만 병력이 남으니까 진단기록을 남기지는 않겠다'는 소견을 받은 서너 살배기 어린이 하바와 일을 하며 혼자 하바를 키우는 나다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유치원생인 어린이 관객과 온 여성 관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먼 나라 것만 같지 않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여자한테는 휴식이 필요해요. 아이에게는 세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말고, 스크린에서 사귄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린이가 나온대서 어린이가 보기 재밌을 법한 영화인 줄 알았을까? 지레짐작을 했겠지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다보는 일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안팎이 만나는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에 티벳불교사원인 타얼스를 다녀온 날 야외상영작으로 <왕드락의 장화>를 보았습니다. 밀밭을 일구고 염소 가죽을 손질해 생계를 이어가는 장족 마을의 초등학교 1학년생 왕드락은 학교 아이들 모두 있는 장화 한 켤레가 없어서 시무룩합니다. 어른들은 추수를 앞두고 마을의 티벳불교 법사가 비를 멈춰주기를 기원합니다. 시닝과도 가까운 티벳의 작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순간순간 시닝과 아주 닮은 경치를 공유했습니다. 야외상영으로 우연히 영화를 보게 된 관객 중에도 장족이 많았습니다. GV시간에 "우리 마을이랑 기우를 드리는 풍습이 달라요!"로 시작된 티벳 농촌 이야기가 영화 바깥에서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야외상영작은 정저우의 특수학교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까로미오벤>이었습니다. 부산과 야마가타에서도 소개된 이 영화는 농인과 맹인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가만히 오래오래 지켜봅니다. 그러다 친구가 된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합니다. 영화의 말미,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이기도 한 <까로미오벤>을 부르는 이원은 엄마와 함께 시계탑에 올라 다섯 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습니다. 시닝에 오려고 헐레벌떡 택시로 가로지른 정저우 얼치광장 시계탑에 서서 행복해하는 이원의 모습을 보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GV에서 이원은 상하이에 있는 음악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산 누군가를 영화에서 만나 나와 연결짓는 이 개인적 순간이 주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무엇보다 계속 생각나는 순간은, 첫 야외상영과 GV가 끝났을 때입니다. 스크린 앞 무대로 스태프가 올라오기에 마지막 인사 내지는 공지사항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미 열한 시에 가까워진데다 밤에 유독 쌀쌀한 시닝의 노천극장에는 드문드문 관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관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고 나서 "GV 질문 관객 분들이 선물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러믄요," 하고 연 말문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 도움으로 행사에 쓸 물품들을 마련했습니다. 질문해 주신 관객 분들은 그 물건들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셔도 돼요.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릴 것입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남는 게 있으니까요. 바로 여러분이요." 사람이 예기치 않게 덩어리째의 진심을 맞닥뜨리면 얼떨떨하고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아와 검색해 보니 그 스태프는 퍼스트의 공동발기인인 리즈웨이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달 전에 기차역에 가서 표를 끊으려고요. 영화제만 생각하다가 미처 가볼 생각도 못했던 소금호수, 무협 영화의 단골 배경인 곤륜산도 그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무슨 영화를 보려고 깜깜한 극장 안에 내내 앉아 있게 될까요? 근데 그래도 영화 보는 거, 재미있는데…….

글 / 김송요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편집위원)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글.그림 / 윤자영

영화를 사랑해서 극장에 출몰하는 미지의 생명체 '토끼리'. NOW에서는 매 호 토끼리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독립영화와 만납니다. 토끼리 손을 잡고 극장이라는 세계를 함께 탐험해보시길 바랍니다.

NOW NO.16 2018.07
편집 서울독립영화제
자문 김동현
기획 김도란, 김송요, 김지은, 이도훈, 이은지
담당 김송요
진행 김지은 이채현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5 2층 (04205)
문의 02-362-9513 / 02-334-3166 / siff@siff.kr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배포처

서울
CGV아트하우스 대학로
CGV아트하우스 명동역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KT&G 상상마당 시네마
미디액트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에무시네마
이리카페
인디스페이스
자체휴강시네마
카페 공드리
한국영상자료원

경기/인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헤이리시네마

강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속초 동아서점
춘천 일시정지시네마

대전/충남/충북
대전아트시네마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전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지프떼끄)

광주/전남
광주극장
광주 맥거핀
순천 책방심다

대구/경북
CGV아트하우스 대구
대구영상위원회
안동 중앙극장
오오극장

부산/경남
CGV아트하우스 서면
FROM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창원 씨네아트 리좀